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이신영*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기술통계로는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증, t검증, ANOVA,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의 특징은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학력이 무학으로 낮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이 백만 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이 백만 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녀 동거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생활수준, 취업 여부이었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남성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생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생활만족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가 높았다.

주제어: 자녀동거, 생활만족도, 여성노인, 남성노인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4%가 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8).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빈곤, 건강,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호제도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더 나아가 이제는 노인의 행복한 노후와 삶의 만족을 위해 어떠한 여건과 상황이 갖추어졌는가를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노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일상생활기능(민경진·황진수, 2007), 건강상태(윤현숙·허소영, 2007), 자아존중감(김정엽·권복순, 2007), 종교(김미숙·박민정, 2000), 사회적 지지(소광섭, 2007)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길어진 노년기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준다. 가족은 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사회적 부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관계망으로 비혈연집단을 선택하는 노인들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의 삶에서 가족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임을 나타낸다(김영범·박준식, 2006).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38.2%이지만 미래의 동거의향을 물어보면 그 비율이 증가하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8).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노년기 이전에 연금이나 저축 등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로 경제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34.7%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65.3%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다(통계청, 2008).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노인은 28.3%이며 전체 노인의 47%가 어떤 형태의 노후준비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05). 석상훈 외(2008)에 의하면 은퇴자의 경우 노후생활비로 자식에게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아 노후대비에 있어 자녀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은 자녀에 의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사회가 노인부양에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충분한 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노인들에게 있어 가족의 유대관계는 그들의 가치체계에서 일차적이며 사적 부양망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심리적 만족, 안정,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손화희 외, 2000).

한편 다른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노령의 여성화(feminization of old age)현상은 노인집단내의 성별 특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 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성노인의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평균적인 노인의 특성에 의해 노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성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박기남, 2004).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광희·한혜경, 2002; 이선미·김경신, 2002). 그러나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 남녀가 생애주기별로 삶의 조

건이 다르고 그러한 조건의 차이가 노후 생활의 만족에 대한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객관적 삶의 조건이 남성노인에 비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에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자녀 동거여부와 관련시켜 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노인집단의 욕구에 맞는 정책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의 개념

생활만족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Neugarten, et al.(1961)은 일상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의미와 책임감을 지니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성취감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생활만족이라 하였다. Havighurst (1968)는 현재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성재와 장인협(2002)은 생활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삶의 만족도,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생활만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 개념은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였

을 때 만족은 과거,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다. 지속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보면 만족과 사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된 인지상태인 반면 행복은 일시적인 정서 상태와 관련된 개념이다(권중돈·조주연, 2000: 62).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상태로서, 삶을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정서적 안녕상태 및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임주영·전귀연, 2004: 7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결혼상태, 사회활동 등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요인들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가족동거를 포함한 가족관계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 요인

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부부와 동거할 경우 또는 자녀와 동거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유배우 노인과 무배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상태에 있는 유배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사별한 노인이나 독거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Mannell & Dupuis, 1996; 권중돈·조주연, 2000). 배우자의 유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의 지각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덕순·이홍직, 2006; 박광희·한혜경, 2002). 노인들이 자녀들과 자주 만나거나 많은 시간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생활만족과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손화희·정옥분, 1999; 손덕순·이홍직, 2006).

60세 - 80세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양순미와 홍숙자(2003)의 조사결과에서는 독거와 동거 가구형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순돌(2003)의 결과에서는 신체적 건강, 정신건강, 자아통제감, 사회적 지지망수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가족동거여부는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한 정태연·조은영(2005)의 연구에서도 동거가족의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영희(1995)의 조사결과에서는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거주형태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와의 동거가 노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생활만족도를 낮춘다고 한다. 즉 독립성과 개인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성인자녀의 독립을 규범화하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된 주거를 이루는 것이 규범적인 성인기 전이의 한 과정이며, 성인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은 취업, 결혼과 같은 다른 성인기 전이의 실패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와의 동거가 성인자녀의 의존성의 연장을

상징하며,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실패를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될 것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한경혜·윤순덕, 2001: 166).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만성질환이 높아 노후에 더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정정희 외, 2005).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조사한 박광희와 한혜경(2002)의 조사 결과에서는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박기남(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역할상실이나 건강수준의 악화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연령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김기태·박봉길, 2000).

종교는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지원의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며, 개인에게 지역사회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여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손화희와 정옥분(1999)의 조사결과에서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김미숙과 박민정(2000)의 연구에서도 종교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요인

건강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희숙·이진현, 2007; 박민서·조규범, 2003; Mannel & Dupuis, 1996).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 건강상의 문제는 노화현상에만 그치지 않고 노인의 생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인은 건강할수록 사회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객관적인 신체기능상태 보다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생활만족도에 더 관계가 높은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석말숙, 2004; 박광희·한혜경, 2002; Ardel, 1997).

노인의 경제 상태는 건강 상태와 함께 생활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인들에 있어서 은퇴로 인한 소득의 상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초래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김기태·박봉길, 2000).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선미·김경신, 2002; Ardel, 1997). Choi(2001)는 고용자체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생활만족의 잠재적인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한편 Mannel & Dupuis(1996)는 재정 및 수입의 적절함은 노년기에 있어 생활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자보다가난한 사람이 생활만족도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기태와 박봉길(2000)도 절대적인 경제상태보다는 주위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실시된 '대구광역시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8만 7천명 가운데 2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2003년 12월 말 현재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지역(구, 군), 성, 연령별로 만65세 이상 노인을 3단 층화 무작위추출(three-staged stratified random sampling) 하였다. 각 조사지역별로 약 10개의 표본 단위로 지점수를 선정, 각 지점수별로 일정한 표집간격에 따라 계통적 표집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지위, 자녀 유무, 가족형태, 건강상태, 월평균소득, 주관적 생활수준을 조사하였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이며, 독립변수는 자녀 동거여부,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자 상태, 종교 유무, 만성질환 유무, 수발 필요 유무, 주관적 건강수준, 월평균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취업 여부 등 11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로는 독거노인과 동거노인,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증, t검증, ANOVA 가 사용되었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여성노인(1234명)과 남성노인(766명)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주관적 생활수준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연령($\chi^2=33.52$, $p<.001$), 자녀동거여부($\chi^2=46.44$, $p<.001$), 학력($\chi^2=382.58$, $p<.001$), 종교 유무($\chi^2=69.74$, $p<.001$), 주관적 건강수준($\chi^2=83.21$, $p<.001$), 월평균소득 ($\chi^2=61.59$, $p<.001$)에 있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자녀와 동거하며, 학력이 낮고, 종교가 있으며, 주관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낮았다.

2)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chi^2=27.37$, $p<.001$), 학력($\chi^2=16.09$, $p<.001$), 배우자 유무($\chi^2=59.30$, $p<.001$)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학력이 무학으로 낮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연령($\chi^2=4.62$, $p<.05$)과 배우자 유무($\chi^2=30.49$, $p<.001$)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여성노인	남성노인	계	χ^2 검증
연령	65-69세	476(55.7)	378(44.3)	854(100.0)	33.52***
	70-79세	552(63.4)	318(36.6)	870(100.0)	
	80세 이상	206(74.6)	70(25.4)	276(100.0)	
배우자유무	없다	819(86.2)	131(13.8)	950(100.0)	.05
	있다	398(38.9)	625(61.1)	1023(100.0)	
자녀유무	없다	247(62.2)	150(37.8)	397(100.0)	.27
	있다	981(61.6)	612(38.4)	1593(100.0)	
자녀동거 여부	아니오	596(54.7)	493(45.3)	1089(100.0)	46.44***
	예	591(69.9)	254(30.1)	845(100.0)	
학력	무학	557(82.3)	120(17.7)	677(100.0)	382.58***
	초졸	472(66.3)	240(33.7)	712(100.0)	
	중졸 이상	153(28.2)	389(71.8)	542(100.0)	
종교	없다	271(47.5)	299(52.5)	570(100.0)	69.74***
	있다	951(67.7)	454(32.3)	1405(100.0)	
주관적 건강수준	나쁜 편	708(71.4)	284(28.6)	992(100.0)	83.21***
	보통	274(56.5)	211(43.5)	485(100.0)	
	좋은 편	244(48.3)	261(51.7)	505(100.0)	
월평균소득	백만원 미만	1048(64.4)	580(35.6)	1628(100.0)	61.59***
	백만원 이상	70(35.5)	127(64.5)	197(100.0)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	448(62.5)	269(37.5)	717(100.0)	1.07
	보통	691(61.8)	428(38.2)	1119(100.0)	
	여유있는 편	72(57.6)	53(42.4)	125(100.0)	

* $p<.05$, ** $p<.01$, *** $p<.001$

〈표 2〉 자녀동거여부에 따른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여성노인		남성노인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연령	75세 미만	407(56.3)	316(43.7)	381(68.2)	178(31.8)
	75세 이상	189(40.7)	275(59.3)	112(59.6)	76(40.4)
		$\chi^2=27.37^{***}$		$\chi^2=4.62^*$	
학력	무학	247(46.5)	284(53.5)	70(61.4)	44(38.6)
	초졸	233(50.9)	225(49.1)	152(64.4)	84(35.6)
	중졸 이상	97(65.1)	51(34.9)	261(68.1)	122(31.9)
		$\chi^2=16.09^{***}$		$\chi^2=2.12$	
배우자유무	없다	329(42.3)	449(57.7)	58(45.0)	71(55.0)
	있다	261(66.1)	134(33.9)	429(70.3)	181(29.7)
		$\chi^2=59.30^{***}$		$\chi^2=30.49^{***}$	
종교유무	없다	121(46.5)	139(53.5)	190(65.3)	101(34.7)
	있다	471(51.3)	448(48.7)	298(66.8)	148(33.2)
		$\chi^2=1.80$		$\chi^2=.183$	

* p<.05, ** p<.01, *** p<.001

3) 자녀동거여부에 따른 남녀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

자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성노인의 경우 월소득($\chi^2=10.83$, $p<.001$), 취업여부($\chi^2=7.71$, $p<.01$), 주관적 생활수준($\chi^2=17.76$, $p<.001$)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백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월소득($\chi^2=3.67$, $p<.05$)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백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동거여부에 따른 남녀노인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여성노인		남성노인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만성질환 유무	없다	119(50.4)	117(49.6)	59(67.8)	28(32.2)
	있다	477(50.2)	474(49.8)	434(65.8)	226(34.2)
		$\chi^2=.01$		$\chi^2=.15$	
수발필요	없다	588(50.4)	578(49.6)	490(66.1)	251(33.9)
	있다	8(38.1)	13(61.9)	3(50.0)	3(50.0)
		$\chi^2=1.26$		$\chi^2=.69$	
주관적 건강수준	나쁜 편	343(50.7)	333(49.3)	187(67.8)	89(32.2)
	보통	142(53.4)	124(46.6)	128(62.4)	77(37.6)
	좋은 편	104(43.9)	133(56.1)	169(66.0)	87(34.0)
		$\chi^2=4.91$		$\chi^2=1.49$	
월소득	백만원 미만	507(50.5)	496(49.5)	358(63.5)	206(36.5)
	백만원 이상	49(71.0)	20(29.0)	92(72.4)	35(27.6)
		$\chi^2=10.83^{***}$		$\chi^2=3.67^*$	
취업여부	아니오	510(48.8)	536(51.2)	347(65.5)	183(34.5)
	예	74(62.2)	45(37.8)	135(67.2)	66(32.8)
		$\chi^2=7.71^{**}$		$\chi^2=.19$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	244(57.8)	178(42.2)	177(66.8)	88(33.2)
	보통	302(44.9)	371(55.1)	268(64.7)	146(35.3)
	여유있는 편	37(53.6)	32(46.4)	39(73.6)	14(26.4)
		$\chi^2=17.76^{***}$		$\chi^2=1.73$	

* p<.05, ** p<.01, *** p<.001

4)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수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t=4.03$, $p<.05$), 학력($t=37.55$, $p<.001$), 자녀 동거여부($t=11.21$, $p<.001$), 배우자 유무($t=15.99$, $p<.001$), 만성질환 유무($t=11.76$, $p<.001$), 수발필요 여부($t=5.55$, $p<.05$), 주관적 건강수준($F=23.09$, $p<.001$), 월소득

($t=17.73$, $p<.001$), 주관적 생활수준($F=128.43$, $p<.001$)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75세 미만으로 낮은 경우,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은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있지만 수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월소득이 백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

〈표 4〉 남녀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수	구분	여성노인		남성노인	
		M(SD)	t/F	M(SD)	t/F
연령	75세 미만	3.03(.74)	4.03*	3.04(.80)	.94
	75세 이상	2.95(.72)		2.98(.82)	
학력	무학	2.85(.74)	37.55***	2.76(.81)	15.42***
	초졸이상	3.12(.72)		3.08(.80)	
자녀동거 여부	아니오	2.94(.77)	11.21***	3.02(.83)	.19
예	3.08(.68)	3.05(.76)			
배우자유무	없다	2.94(.75)	15.99***	2.83(.79)	9.59**
	있다	3.12(.68)		3.07(.81)	
종교유무	없다	2.93(.75)	2.76	2.96(.77)	3.64
	있다	3.02(.73)		3.07(.82)	
만성질환	없다	2.86(.69)	11.76***	2.92(.81)	1.76
	있다	3.04(.74)		3.04(.81)	
수발필요	없다	3.01(.73)	5.55*	3.03(.81)	2.27
	있다	2.64(.90)		2.57(.53)	
주관적 건강수준	나쁜 편	2.89(.75)	23.09***	2.87(.81)	8.16***
	보통	3.04(.61)		3.09(.74)	
	좋은 편	3.26(.73)		3.14(.84)	
월소득	백만원 미만	2.98(.73)	17.73***	2.95(.80)	39.85***
	백만원 이상	3.36(.64)		3.44(.71)	
취업여부	아니오	3.01(.73)	1.83	3.03(.79)	.02
	예	2.91(.73)		3.02(.86)	
주관적 생활수준	어려운 편	2.63(.76)	128.43***	2.59(.79)	79.55***
	보통	3.18(.59)		3.24(.70)	
	여유있는 편	3.65(.68)		3.58(.75)	

* $p<.05$, ** $p<.01$, *** $p<.001$

주관적으로 생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노인의 경우 학력($t=15.42$, $p<.001$), 배우자 유무($t=9.59$, $p<.01$), 주관적 건강수준($F=8.16$, $p<.001$), 월소득($t=39.85$, $p<.001$), 주관적 생활수준($F=79.55$, $p<.001$)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높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월소득이 백만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관적으로 생활수준이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5)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는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매우 만족을 5점으로 코딩하였다. 독립 변수는 자녀 동거여부(동거=1, 비동거=0), 연령, 교육수준, 유배우자 상태(있다=1, 없다=0), 종교 유무(있다=1, 없다=0), 만성질환 유무(있다=1, 없다=0), 수발필요 여부(있다=1, 없다=0), 주관적 건강수준(1점=매우 나쁘다, 5점=매우 좋다), 월소득, 현재 취업 여부(예=1, 아니오=0), 주관적 생활수준(1점=매우 나쁘다, 5점=매우 좋다) 등 11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은 자녀와의 동거 자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자녀 동거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b=.147$, $\beta=.099$, $p<.001$). 이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592$, $p<.001$), 0.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거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모델 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동거여부는 모델 2에서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제할 때, 동거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b=.203, p<.001$). 또한 이 모델에서 교육수준($b=.235, p<.01$)과 배우자 유무($b=.157, p<.01$)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363, p<.001$), 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다 건강과 경제적 변수들을 포함시켜 확장하였는

〈표 5〉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935***		2.732***		1.995***	
자녀동거여부	.147***	.099	.203***	.138	.107*	.073
연령			.000	-.006	-.001	-.013
교육수준			.235**	.158	.082	.055
배우자유무			.157**	.101	.072	.046
종교유무			.065	.036	.054	.030
만성질환유무					.050	.026
수발필요유무					-.299	-.052
주관적 건강수준					.106***	.114
주관적 생활수준					.466***	.358
월평균소득					-.012	-.018
취업여부					-.175*	-.071
R-square	.010		.055		.203	
adjusted R ²	.009		.051		.195	
R ² 증가량			.045		.148	
F	10.592***		12.363***		24.337***	

* $p<.05$, ** $p<.01$, *** $p<.001$

데, 이들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동거여부의 영향이 지속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모델 3에 의하면 자녀동거여부($b=.107$, $p<.05$)는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beta=.358$)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이며, 다음이 주관적 건강($\beta=.114$)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이 좋고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4.337$, $p<.001$), 19.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보다 모델 3의 설명력은 14.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6>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b	beta	b	beta
상수	3.014***		2.429***		1.358**	
자녀동거여부	.038	.022	.085	.049	.085	.049
연령			.001	.005	.004	.025
교육수준			.329***	.147	.175*	.078
배우자유무			.223*	.104	.196*	.092
종교유무			.082	.049	.085	.051
만성질환유무					.003	.001
수발필요유무					-.444	-.047
주관적 건강수준					.043	.044
주관적 생활수준					.550***	.397
월평균소득					.000	.055
취업여부					-.075	-.040
R-square	.000		.039		.209	
adjusted R ²	-.001		.032		.196	
R ² 증가량			.039		.170	
F	.330		5.369***		15.727***	

* $p<.05$, ** $p<.01$, *** $p<.001$

는 <표 6>에 제시되었다. 모델 1은 생활만족도를 자녀 동거여부에만 회귀시키고 있는 단순회귀모형이다. 자녀 동거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b=.038$, $\beta=.022$, $p<.001$).

모델 2는 모델 1에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거 형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모델 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던 자녀 동거여부는 모델 2에서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교육수준($b=.329$, $p<.001$)과 배우자 유무($b=.223$, $p<.05$)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369$, $p<.001$), 3.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다 건강과 경제적 변수들을 포함시켜 확장하였다. 동거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b=.175$, $p<.05$), 배우자 유무($b=.196$, $p<.05$), 주관적 생활수준($b=.550$, $p<.001$)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727$, $p<.001$), 19.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보다 모델 3의 설명력은 17.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5.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도시거주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

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거하는 노인의 특징은 남성노인 여성노인 모두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월소득이 백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또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1세대 가구가 65-69세 노인의 경우 39.6%에서 80세 이상인 경우 15.9%로 감소한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3세대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를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립생활이 가능하지 않아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동거여부가 중요한 변인이었으나 남성노인에게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더욱 영향력이 있다는 조사(원영희, 1995)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현재의 노인관련 정책은 그 가정에 부합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가 긴밀한 노인들이 제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김영범·박준식, 2004).

셋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이 높은 연구들과(권중돈·조주연, 2000; 이선미·김경신, 2002) 동일한 결과이다.

넷째,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배우자 유무였다.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의 상

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하락도 의미한다. 원영희(1995)의 조사결과 자녀와의 동·별거 형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박광희·한혜경, 2002; 장현·이철우, 1996; 박민서·조규범, 2003). 배우자 유무는 미래의 거주형태에도 영향을 준다. 200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부부끼리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와의 동거나 노인요양시설 이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와 살겠다는 응답은 여성노인이 남자노인의 2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노인의 경우 아내로부터의 수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여성노인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수발을 기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정경희 외, 2005).

2) 제언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동거는 비공식적 지지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상노인과의 동거 및 부양에 따른 과중한 부담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노인의 학대 및 유기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가족부양을 원하는 노인을 위해 자녀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세제감면, 주택자금 융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가족부양 보완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2005년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노인의 18.1%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6). 독거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안전 확인, 가사 간병 제공, 독거노인 가구내 센서를 통해 노인의 활동 상태를 감지하고 응급상황 시 구조요청과 연결되는 U-CARE 시스템의 시범실시 등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서비스들이 안정화되어 노인 단독가구의 기본적인 요구 충족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경제적 안정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다.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이 요구되며, 또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년의 연장, 재취업 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다양성을 지닌 집단이다. 특히 성별에 따라 처해있는 상황도 다르며 다른 욕구를 가졌으므로 평균 노인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여성노인들의 욕구충족이 미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이 가진 독특한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에도 성인지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일 지역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특히 사회적 지지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중요 변수임을 비추어 볼 때 계층별로 생활만족도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원고접수: 2009. 4. 10. 게재확정: 2009. 6. 10)

참고문헌

- 강희숙·이진현(2007),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권, pp.51-64.
- 김기태·박봉길(2000), “생활보호대상노인과 일반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노인복지연구』, 제5권, pp.57-83.
-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4권 1호, pp.169-185.
- _____ (2006), “노인의 사회관계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6권 2호, pp.261-273.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20권 3호, pp.61-76.
- 김미숙·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2호, pp.29-47.
- 김정엽·권복순(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이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제37권, pp.111-130.
- 민경진·황진수(2007),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6권 여름호, pp.221-246.
-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제11권, pp.43-61.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3호, pp.13-29.
- 박민서·조규범(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권 1호, pp.15-30.
- 소광섭(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7-30.
- 손덕순·이홍직(2006),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태체계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1권 봄호, pp.181-205.
- 손화희 외 (2000), “거동불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20권 1호, pp.93-112.
- 손화희·정옥분(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19권 1호, pp.83-103.
- 석말숙(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 체계적 접근: 지역사회 거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6권 겨울호, pp.237-261.
- 석상훈 외(2008), 『제2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양순미·홍숙자(2003),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6호, pp.129-139.
- 원영희(1995), “동·별거 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5권 2호, pp.97-116.
- 윤현숙·허소영(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3호, pp.649-669.
- 이선미·김경신(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1호, pp.138-157.
- 임주영·전귀연(2002),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배우자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4권 1호, pp.71-87.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정순돌(2003), “저소득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 복지학』, 제11호, pp.59-79.
- 정태연·조은영(2005),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탐색”,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pp.55-71.
-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통계청(2006), 『2006 고령자통계』
- _____(2008), 『2008 고령자통계』
- 한경혜·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 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1권 2호, pp.163-178.
- Ardelt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1), pp.15-27.
- Choi, Namkee G. (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ostretirement Employment among Older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2(1), pp.45-70.
- Havighurst, R. J.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nnell, R. C., and Dupuis, S. (1996), “Life Satisfaction”. In J.S.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2). New York: Academic Press, pp.59-64.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and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pp.134-143.

<Abstract>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and Male Elderly

Shin-Young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including living arrangemen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come tha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and male elderly. The respondents were 2,000 elderly residing in the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as frequency, chi-square test,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liv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were above 75 years old, and had no spouse and low income.
2. Living with the adult children, health condition, subjective income level, and employ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emale elderly.
3. Education, presence of spouse, and subjective income level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ale elder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were presented.